13강 논쟁으로 보는 성선설

◆ 1교시 선도 없고 불선도 없다

▲ 고자, 성에는 선도 악도 없다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성선설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맹자의 고자上에 나옵니다. 고자上편에 보면은 1장부터 6장에 걸쳐서요, 5장에서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6장이 모두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맹자의 논쟁 상대로 고자가 나오는데, 告子가 실존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고자의 주장은 처음에는 성무선무악, 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 견해가 어떤 사람은 성이 선하고 어떤 사람은 성이 악하다는 식으로 견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사람의 일관된 견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성선설이 아닌 다른 견해를 고자가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자가 맹자의 성선설에 반대하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견해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자라는 사람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텍스트를 인정하고 고자라는 지식인과 맹자의 대화를 살펴보죠. 1장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하단에 고자상편의 1장이 나오는데요. 본성과 인의 관계에 대해서 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告子曰 性猶杞柳也요 義는 猶桮棬也니, 고자는 이렇게 말했다. 본성은 비유하자면 버드나무와 같고, 의는 마땅한 도리,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의는 그릇과 같다. 그러니 以人性爲仁義는 -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의를 실천하는 것은, 猶 以杞柳爲桮棬(유이기류위배권)이니 - 버드나무를 가지고 잔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고자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셈인데요. 맹자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孟子曰 子能順杞柳之性而 以爲桮棬乎아, 그대는 버드나무의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서 잔 따위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將戕賊杞柳而後에 以爲桮棬也니, 장차 버드나무를 해친 뒤에 잔이나 그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버드나무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잔이나 그릇을 만들 순 없겠죠. 如將戕賊杞柳而以爲桮棬이면, 만약 버드나무를 자르고 해친 다음에 잔과 그릇을 만들 수 있다면. 則亦將戕賊人以爲仁義與아, 또한 장차 사람을 해쳐서 인과 의를 실천하게 할 것인가?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는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인위에 해를 끼칠 것은, 必子之言夫인저 반드시 그대의 지금 이 말일 것이다.

고자의 주장은 버드나무를 해쳐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을 바꾸어서 인의를 실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니까, 사람의 본성은 인의와는 무관하다. 인의를 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고자의 첫 번째 주장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정해서 인의를 실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거나 마찬가지니까, 맹자가 부정하면서 만약에 인간의 본성을 해쳐서 인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사람의 본성을 모두 해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니까, 결국 인의를 실천할 수 없게 인의에 해를 끼치는 것과 진배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겁니다.

www.artnstudy.com

이런 걸로 보아서 고자가 인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인의와 상관없이 악하다는 걸 주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고자가 인제 다시 다른 주장을 펼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1장에서는 고자는 인간 본성을 악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를 바 없는데 2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바뀝니다.

▲ 물은 동서의 구분없이 흐른다

告子曰性은 猶湍水也라,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그래서 꼭 소용돌이라기보다도 빙빙 도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決諸東方則東流하고, 동쪽으로 물을 터주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決諸西方則西流하나니,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흘러간다. 그것처럼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는 사람의 본성이 선과 불선의 구분, 차이가 없는 것은 猶水之無分於東西也니라. 물이 동서의 구분 없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선으로 터주면 선으로 가고, 악으로 터주면 악으로 간다. 이런 식의 주장한 거예요. 선악의 구분이 없다. 선불선으로 나눠서 이야기 할 수 없다. 1장에 나온 고자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맹자가 비판하죠. 孟子曰水信無分於東西어니와 물은 참으로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無分於上下乎아, 상하의 구분도 없는가? 人性之善也猶水之就下也니, 사람의 본성이 착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으니. 人無有不善하며, 사람의 본성에는 불선함이 없으며. 水無有不下(수무유불하)니라,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 가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맹자의 주장을 재비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거나 말거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죠. 어디까지나 비유니까요. 그런 비유를 만약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쪽에서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렇게 주장할 때 달리 대꾸할 말이 없죠. 어쨌든 물로 비유한 것은 고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고자가 물로 비유했으니까, 동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흘러가는 게 물이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을 맹자가 물이 위아래도 없느냐? 물은 위아래로 흘러가니까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의 일정부분은 고자와의 대화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죠. 완전한 논증은 될 수 없지만요. 인제 다음 이야기요. 今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顙이며, 이제 물을 손으로 쳐서 띄우면 이마를 지나게 할 수 있으며. 激而行之면 可使在山이어니와, 급격하게 물을 운행하면 그 물로 하여금 산에 있기 할 수 있지만, 是豈水之性哉리오 其勢則然也니,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그 형세과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만든 것이니. 人之可使爲不善이 其性이 亦猶是也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불선을 저지르게 할 수 잇는 것은 그 본성이 또한 이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을 원래 선하기 때문에 선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돼있는데, 그 외부의 힘이 이를테면, 물욕이라든지 외부의 욕심이 인간의 본성을 구속시키기 때문에 악이 저질러지는 것이다.이런 식으로 맹자가 이야기 한 것이죠.

▲ 타고난 것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3장을 보겠습니다. 고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인간 본성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 하는 부분인데요. 告子曰 生之謂性이니라, 고자는

www.artnstudy.com

이렇게 말했다. 타고난 것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 타고난 것을 성이라고 하는 거지, 나중에 후천적으로 익힌 인의예지, 이런 것이 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고자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다시 논박합니다. 孟子曰 生之謂性也는 猶白之謂白與아, 당신이 타고난 것을 본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흰 물체가 흰빛을 띠고 있는데, 그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가? 曰然하다, 고자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다시 白羽之白也가 猶白雪之白이며 흰 깃털의 흼이 흰 눈의 흼과 같으며. 白雪之白이 猶白玉之白與)아. 흰 눈이 희다고 할 때의 흼이 흰 옥이 희다고 할 때 그 흼과 같은가?曰然(왈연)하다, 고자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맹자가 然則犬之性이 猶牛之性이며 그렇다면 개의 본성이 소의 본성과 같다는 말이여. 牛之性이猶人之性與아, 소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같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고자의 주장을 논파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맹자가 말장난을 조금 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흼은 속성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백설이라고 할 때 눈을 설명하는 하나의 속성이 희다는 거죠. 그리고 견지성, 우지성이라고 할 때 성은 하나의 속성만 갖고 성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 본성이라고 할 때의 성과 개의 본성이라고 할 때 성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내용을 개념화 시켜서 성이라는 말로 묶은 겁니다. 속성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의 꼬리가 짧다든지, 흰 개의 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다면 동일한 논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 맹자는 앞에 흰눈의 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만을 이야기 했고, 뒤에 우지성이니 인지성이니 라고 이야기 했을 때의 성은 속성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성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 게 성이기 때문에, 앞에 희다 검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과 뒤에 본성이라는 것과 같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자가 어쨌든 그렇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여기서 고자가 논파당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맹자의 논증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고자의 수준에 맞춰서 논증을 한 것이니까 일단은 실제로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고자가 자신의 논의를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쳐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고자가하고 싶었던 것은 타고 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인의예지 같은 것을 타고난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인의예지에 근접한 선이라고 얘기하는 맹자의 주장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나중에 순자도 동일한 논의를 전개합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국 선하다고 이야기한 맹자의 주장을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 게 순자니까요.

그 다음 4장을 보겠습니다. 告子曰食色이 性也니, 식은 먹고 싶은 욕망, 색은 여색입니다. 식과 색을 바라는 것이 본성이니. 仁은 內也라 非外也요, 인은 안에 있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義는 外也라 非內也니라. 의는 밖에 있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고자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내면에 있는 가치이고 의는 바깥에 있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봤는데, 맹자는 인과 의가 모두 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식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먹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또 남녀가 서로를 원하는 마음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고자가 이야기한 본성은 본능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의 주장과는 약간 바꾼 것이긴 한데 본능을 선으로 보는 주장은 순자에게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다음 논의가 인과 의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본성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갑

www.artnstudy.com

니다.

▲ 선이 될 수도, 불선이 될 수도 있다

거기 보면 그 당시 있었던 인간의 본성에 관한 모든 논의가 정리돼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공도자는 맹자의 제자입니다. 公都子曰告子曰性은 無善無不善也라하고, 공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맹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도 없고 불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或曰性은 可以爲善이며 可以爲不善이니, 또 어떤 사람의 성은 선이 될 수도 있고, 불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是故로 文武興하면 則民好善하고, 따라서 문왕 무왕 같은 훌륭한 군주가 일어나면 백성들이 선을 좋아하고. 幽厲興하면 則民好暴이라하고, 유왕과 여왕 같은 폭군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포악함을 좋아한다고 했고. 그만큼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의인데, 본성이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 논증은 이 내부에는 포함돼 있지 않는 거죠. 或曰 有性善하며 有性不善하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본성이 불선한 사람도 있다. 고자가 처음 이야기한 주장은, 인간의 본성은 선악으로 나눌 수 없다. 선도 없고 불선도 없다. 선악의 잣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인간의 본성은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선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친 셈인데, 한나라 때 양운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양운 같은 유학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을 닦으면 선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을 닦으면, 악인이 된다. 불선인이 된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과 비슷한 거죠. 세 번째는 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 성이 불선한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세 번째 주장이 인간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근대사회에서는 범죄심리학 같은 게 발달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성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죠.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논리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 성이 불선한 사람도 있다. 是故로 以堯爲君而有象하며 以瞽瞍爲父而有舜하며, 이 때문에 요임금을 군주로 두었는데 상같이 나쁜 자가 있었으며, 상은 요임금 시대의 발탁되어서 나중에 임금이 되는 순의 이복동생입니다. 순을 죽이려고 했죠. 어쨌든 상이 자기 형인 순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때는 요임금의 치세였단 말이에요. 요임금처럼 훌륭한 군주가 다스리고 있는데도 상같이 나쁜 자가 있었던 건 뭐냐? 상은 본래 본성이 악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은 본래 본성이 착한 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수는 인제 순임금이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수 가 있는데.

◆ 2교시 불선을 저지르는 것은 재(才)질의 죄가 아니다

▲ 불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www.artnstudy.com

고대 중국판 신데렐라라고 해야 할까요? 요임금이 시대에 순이 알려지지 않은 비천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순의 아버지가 고수였어요. 고수는 장님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장님이었단 주장도 있고요, 순같이 훌륭한 효자를 두고 못 알아봤다고 해서 눈뜬장님이라고 해서 고수라고 했단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수의 아들인 순은 자기의 본래 낳아준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게 됩니다.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계모 소생의 상이 있고 또 계가 있었어요. 상은 이복 남동생이고, 계는 이복 여동생이에요. 이 네 사람이 똘똘 뭉쳐서 순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는 가장 먼저 마음을 바꿔서 순을 나중에 맨 먼저 도와준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상과 아버지 고수가 합세를 해가지고 순을 죽이려고 합니다. 순으로 하여금 집의 지붕을 수선하게 한 다음에 밑에서 순이 올라가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창고의 지붕을 수선하게 한 다음에 밑에서 불 질러 버려요. 순을 죽이려고 창고에 불 질렀다고 하는 게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순이 미리 그걸 알고 삿갓을 두개 가지고 갔다가 불길을 막아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물을 파게 합니다. 우물이 오래되면 물이 더러워지니까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했는데 순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고수하고 상이 위에서 흙을 메워 버립니다. 우물을 메워 버린 거죠. 근데 순을 본래 그걸 알고 따로 비밀통로를 마련해 두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요. 그러다가 인제 요임금에게 발탁이 되어가지고, 순이 천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신데렐라도 이런 신데렐라가 없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엉망이었는데, 순같이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이건 뭐냐? 순은 본래 본성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당시 요같이 훌륭한 시대였는데도, 고수나 상 같이 나쁜 자가 있었다. 그건 뭐냐? 이런 인간의 본성이 악했기 때문이다. 저런 식으로 보면 사람을 차별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비슷한 이야기 입니다.

以紂爲兄之子요, 주왕을 형의 아들로 두었고. 且以爲君이로되, 또 주왕 같이 폭군을 임금으로 두었는데도. 而有微子啓王子比干이라하나니, 미자계나 왕자비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今曰性善이라하시니, 지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말씀하시니 然則彼皆非與잇가.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은 모두 다 그릇된 것입니까? 맹자는 당연히 그릇된 거라 봅니다. 孟子曰乃若其情則可以爲善矣니 乃所謂善也니라. 이 중간에 뭔가 생략된 것 같아요. 어쨌든 맹자의 주장은요, 그 정을 가지고 말하자면, 선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니, 바로 이른바 그것이 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뭔가 빠져서 불분명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맹자의 주장이 뭔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若夫爲不善은 非才之罪也니라, 이를테면 사람이 불선을 저지르는 일은 才질의 죄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서 공도자가 선생님, 인간의 본성이 선생의 말씀대로 다 선하다면, 실제 일어나는 인간의 불선에 해당하는 저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물으니까 맹자의 대답이, 인간이 그런 식으로 불선을 저지르는 것은 재질의 죄가 아니다. 才는 性과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본성의 죄가 아니고 후천적인 물욕에 의해서 불선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본래 그 재질, 재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있을 재자와 있을 존의 왼쪽 부분이 '재'자 입니다. 존자와 재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요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땅이고요, 싹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직 밑에 있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이게 자라나면은 싹이 이리로 올라와서 싹이 자라나게 되겠죠. 본래 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후천적인 물욕이라든지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악이 된 것이지, 본래 인간의 재질 자체는 선하다. 이런 식으로

www.artnstudy.com

맹자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완전한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대신에 공경지심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인은 목적이고 목표고 심은 그 실마리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실마리로 봐야 되겠죠. 측은지심은 인의 실마리고, 수오지심은 의의 실마리고, 공경지심은 예의 실마리, 시비지심은 지의 실마리이다. 그리고 仁義禮智非由外鑠我也라, 인의예지 같은 것은 밖으로부터 나를 녹여오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我固有之也언마는 弗思耳矣라. 내가 본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의예지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다. 故로 曰求則得之하고 舍則失之라하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구하면 얻고,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니. 或相倍蓰而無算者는 不能盡其才者也니라, 간혹 서로간의 차이가 두 배, 다섯 배가 되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차이에 이르는 까닭은 자기가 타고난 재질을(본성을) 극진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경구절을 인용해서 논증을 합니다. 詩曰 天生蒸民하시니 有物有則이로다, 시경에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만백성을 낳으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곧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마땅한 법칙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보는거죠. 民之秉夷라 好是懿德이라하여늘, 백성들에게 떳떳한 법칙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이렇게 시경에 이야기 했는데 孔子曰爲此詩者其知道乎인저, 공자께서 이걸 풀이하시기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를 아는 구나'. 故로 有物이면 必有則이니, 그 때문에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으니 民之秉夷也라 故로 好是懿德이라하시니라, 백성들이 떳떳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 때문에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고 공자께서 이 시를 두고 풀이하셨다. 사실은 뭐 정확한 논증이라기보다는 시경의 시와 공자의 시 해설을 빌어와 자신의 말에 권위를 보태는 식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선하다고 하는 완전하게 논증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곤란한데요. 최근에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순자의 성악편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순자 13편 성악편인데요, 성악편에서 중요한 내용 앞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 순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순자의 이야기 입니다. 人之性惡 其善者僞也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선행은 인위다. 거짓 위자를 썼는데요. 순자가 확실히 그런 게 있죠. 논증력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맹자와 순자를 비교하면 순자가 앞섭니다. 僞라고 하는 것과 性이라고 하는 게 대비되는 거죠. 이때 성은 고자가 生之渭性이라고 한 것처럼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게 성이고, 위라는 건 타고난 게 아니고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는 사회적 가치다 이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대표하는 데 선같은 거예요.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획득된 거지,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今人之性 生而有好而焉, 지금 사람의 본성을 살펴보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順是故爭奪生 而辭讓亡焉,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빼앗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生而有迭惡焉 順是故殘賊生 而忠信亡焉,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런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인의를 해치는 자들이 일어나고 충신스러운 사

www.artnstudy.com

람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 태어나면서부터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아름다운 색과 소리를 좋아하게 된다. 順是故淫亂生 而禮儀文理亡焉, 이런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음란한 일이 일어나고, 예의나 문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然則從人之性 順人之情,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따르고,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따른다면. 必出於爭奪 合於犯分亂理 而歸於暴, 반드시 쟁탈이라는 행위로 표출되고, 분수를 범하고 도리를 어지럽혀서 포악한 지경으로 돌아가게 된다. 故必將有師法之化 禮儀之道 然後出於辭讓, 合於文理 而歸於治. 그 때문에 장차 스승의 가르침의 교화가 있고 또 예의로서 인도하는 마땅한 도리가 있은 연후라야, 사양하는 마음이 표출되고 또 문리에 부합되어서 질서정연하게 다스려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用此觀之 然則 人之性惡 明矣 其善者僞也, 이를 말미암아서 살펴보건대,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간의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이다. 그 비유를 합니다.

故로, 그 때문에. 枸木必將待■括烝矯然後直, 굽은 나무는 반드시 불에 쬐어서 바로 잡아야 곧아진다. 일단 해석을 하자면, 굽거나 휘어진 나무는 반드시 은괄, 고지개와 정교, 시루로 찌는거죠. 쪄서 바로 잡기를 기다린 뒤에라야 곧게 펴지고, 또 둔한 쇠붙이는 반드시 장차 숯돌을 기다린 뒤에 예리해진다. 뭐 쇠붙이를 숯돌에 갈아서 예리하게 만드는 걸 비유로 썼는데, 은괄은 도지개라고 하는데, 도지개는 요즘도 쓰죠. 요즘 일반적으로는 안 쓰고, 활 만들 때 도지개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가 얘기한 건 구부러진 나무, 뭐 이런 얘긴데, 도지개 쓰는 걸 보니까,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대로 활을 만들 수가 없죠. 활을 만들려면 이렇게 되야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단단한 나무를, 이런 식으로 휘어진 나무에 이걸 묶더라고요. 여기가 나무로 되어 있고, 끝이 고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묶어서 하고, 나무는 요렇게 생긴 나무로 묶고, 이렇게 묶고 해서 도지개 틀을 만들더라고요. 국궁 만드는 걸 봤거든요. 도지개는 나무로 만드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게 은괄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와 같다고 치자면 도지개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바로 잡는 수단이 되는 거죠. 순자가 보이게 인간의 본성은 제멋대로 구부러져 있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 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지개라든지, 이런 예의나, 이게 이제 사법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법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목적에 맞게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인제 순자가 보는 학이에요. 순자가 말하는 학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순자로 사실 맨 앞에는 勸學篇이 나오거든요. 순자 권학편의 내용이, 저 얘기죠. 君子曰하고 나옵니다. 군자가 이렇게 말했다. 學不可以已이니라, 배움은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蓬生麻中 不扶自直, 쑥이 삼밭에서, 삼은 똑바로 자라는 물건이잖아요. 쑥이 삼 한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면, 받쳐주지 않아도, 따로 부축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곧게 되고. 이게 이제 훌륭한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白沙在泥면, 흰모래라 하더라도, 깨끗한 모래라 하더라도 진흙탕 속에 있게 되면 不染自汚니라, 누가 오염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더러워진다. 저절로 진흙에 물들게 된다.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더라도 저절로 더러워진다. 그러면서 인제 교육을 쭉 이야기 하고 청출어람, 청어람 얘기를 하고 그러죠. 다 써보죠. 靑出於藍 靑於藍, 氷水爲之而 寒於水, 푸른 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쪽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쪽빛은 파란색보다 더 진한 걸 쪽빛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풀은 green 이더라고요. '쪽풀의 빛'이라고 하는 게 바로 쪽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초록이에요, 초록. 초록에서 푸른 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만든

www.artnstudy.com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다.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 낸다는 걸 인제 순자가 권학편에서 이야기 하는 거죠. 맹자 식으로 이야기 하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육을 이야기 할 것이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여기서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게 어찌 악하냐고 우리는 이야기 하겠지만, 일정한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익을 좋아해서 서로 다투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순자가 보기에 사회적인 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교정하는 쪽으로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인간의 본성이 정말 선한지 악한지를 따지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런 현미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정이죠. 형이상학적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중요한 건 저거죠.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통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재하는 방식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맹자의 통제방식은 인간의 자율에 의지하는. 끝까지 인간은 자율적으로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수양만 하면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인간을 믿고 낙관하는 입장에 서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벌하거나 또 적대시하는 그런 관념보다 그 사람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처벌보다는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 서는 게 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이 바로 후세의 유가학자들에 의해서는 거의 맹자의 성선설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인제 한당을 거쳐서 송대 성리학자들은 맹자의 성선론에 입각해서 이른바 이기론을 새롭게 수립하죠. 그만큼 맹자의 성선설이 중국 고대의 인간 본성 논쟁에서 뿐만이 아니라 후세의 유학자들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게 전면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인간, 어떻게 보면 맹자는 전국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인간의 인간에 대한 억압이 최고조로 달았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다른 '모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선도 악도 없다. 성은 선악으로 구분할 수 없다,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모두 다 물리치고, 맹자의 표현이지만은 그런 것이 다 그르다고 이야기 하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대단히 어려운 주장은 한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점이 바로 공자 정신을 잘 계승한 맹자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정도로 맹자의 본성에 관한 주장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최종적으로 맹자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www.artnstudy.com